

보 도 해 명 자 료 ('19. 4. 9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한전·한수원·발전사 실적 하락은 에너지전환정책과 전혀
무관함 (한국경제 4.9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)

◇ '18년 한전 및 그 자회사인 한수원과 발전 5사의 실적 하락은 국제
연료가격의 상승과 원전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원전 이용률
하락이 주원인으로 에너지전환('탈원전') 정책과는 전혀 무관함

◇ 4월 9일 한국경제 <탈원전 '정책실험' 공간 거덜나는 공기업>
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1. 기사 내용

□ 한국전력 '18년 순손실이 △1조 1,508억원에 달했고, 한국서부·중부·
동서발전 등 발전사도 줄줄이 적자로 돌아섰음

○ 전문가들은 적자의 원인은 급격한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이라 해석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'18년 한전 및 그 자회사인 한수원과 발전5사의 실적 하락은 국제
연료가격 상승, 원전 이용률 하락이 주원인이며, 에너지전환('탈원전')
정책과는 전혀 무관함

○ '17년 대비 국제 연료가격이 유가 30%, LNG 16.2%, 유연탄 21%가
인상되면서 한전의 연료비가 3.6조원, 구입전력비가 4.0조원 증가

* 연료가격('17→'18): (유연탄) 78.4→95.0\$/t, (LNG) 66.1→76.8만원/t, (유류)53.2→69.7\$/B

□ 또한, '16.6월 이후 격납건물 철판부식, 콘크리트 결함 등 과거 부실
시공에 따른 보정조치로 인해 원전 정비일수 증가

구분	2016년	2017년	2018년
원전 정비일수	1,769일	2,565일	2,917일
(원전이용률)	(79.7%)	(71.2%)	(65.9%)

○ '16.6월 한빛2호기 격납건물 철판부식 발견에 따른 원전 전체(격납
건물 철판 19기, 콘크리트 25기) 확대점검 결과, 9기에서 격납건물
철판부식, 13기에서 콘크리트 결함 발견으로 보수공사 실시

*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는 중대사고 발생시 국민안전과 직결된 핵심
안전설비로서, 정비대상 원전은 원안위의 원전안전법령의 기술기준 준수
및 안전성에 대한 승인을 받아 순차적으로 재가동

□ 에너지전환 정책은 60여년에 걸쳐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
것('24년까지는 원전 증가)이지, 현재 보유한 원전 설비의 활용을
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며, 원전이용률은 정비 일정 등에 따라 결정
되는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님

* 원전의 설비 규모 : ('17) 22.5GW, 24기 → ('24) 27.2GW, 26기 → ('30) 20.4 GW, 18기

※ 문의 : 전력시장과 박찬기 과장 / 김은성 사무관(044-203-5261)